

대학생의 만성적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초기 부적응도식

임성문*

초 록

지연행동은 해야 할 과제의 시작과 완수를 불필요하게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 지연행동은 학생들의 학업부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함이 밝혀짐에 따라 서구에서는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연구는 아직 드물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예비연구의 성격을 띠고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수행되었다. 첫째, 앞으로의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서구에서 개발된 대표적인 지연행동질문지 두 종류를 번안하여 통계분석방법을 통한 심리측정적 적절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Young의 초기부적응도식을 사용하여 지연행동을 예측하는 발달적 변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529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두 종류의 지연행동 질문지와 초기부적응도식 질문지를 실시하여 상관분석과 요인분석을 수행하였고, 요인분석 결과 확인된 13개의 초기부적응도식을 예언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두 종류의 지연행동 질문지는 질문지 개발자, 서구 선행연구 결과와 일관되게 단일요인구조 및 안정적인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확인되었으며, 초기부적응도식 질문지는 국내 선행연구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또한 지연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4개의 초기 부적응 도식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중 2개의 초기부적응도식은 Young의 이론이 예측하는 바와는 반대방향으로 지연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논의에서 이 결과에 대해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한 문화적 함축성을 기술하였다.

주제어 : 만성적 지연행동, Lay의 지연행동척도(GP), McCown & Johnson의
지연행동척도(AIP), 초기 부적응도식

* 충북대학교

I. 서 론

대학생들 중 70%가 해야 할 학업과제를 자주 미루는 경향이 있고, 성인의 20%가 해야 할 일들을 만성적으로 미루는 사람이라 보고되고 있다(Ellis & Knaus, 2002; Hammer & Ferrari, 2002). 해야 할 일과 의사결정을 불필요하게 미루는 것을 의미하는 지연행동(procrastination)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보편적인 현상인 것 같다. 그러나 미루는 행동이 일상의 다양한 장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면 만성적 지연행동이 되어 많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고등학생 중 15-20%가 빈번한 학업적 지연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잠재력보다 훨씬 낮은 학업수행을 보여 학습부진이 되고(Mandel, 1997; Mandel & Marcus, 1988), 대학생의 경우 기말보고서 미제출, 수강과목 철회, 저조한 성적을 유발하게 된다(Clark & Hill, 1994; Solomon & Rothblum, 1984). 나아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Blunt & Pychyl, 2000), 건강을 위협하고(Baumeister, 1997), 대인간 갈등을 증가시킨다(Day, Mensink, & O' Sullivan, 2000). 내적으로는 비합리성, 후회, 절망, 불안, 우울, 자기비난에 시달리고 죄의식 및 수치심을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자존감과 자기효능감도 낮았다(Ferrari, Johnson, & McCown, 1995). 이렇게 만성적 지연행동은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유발하게 되는데, 한 연구(Gallagher, 1992)에 의하면 상담실을 찾은 학생들 문제의 52%가 지연행동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이로 인해 학교상담자들은 학생들의 지연행동에 대해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비교적 늦은 1980년대가 되어서야 시작되었다.

그간 지연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이 연구되어왔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 구실 만들기,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자존감, 낙관성-비관성, 비합리적 인지, 우울, 죄책감, 내외재적 동기, 내외통제소재, 특성-상태불안, 충동성, 사회불안, 공적-사적 자기의식, 자기제시, 비경쟁성, 지배성, 대인관계통제력, 정체감, 생활만족도, 밤에 일하기, 몰입 등이 반복적으로 다루어졌다(Ferrari, 2004; Ferrari, et al., 1995).

그런데 근래 이러한 변인들과 달리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발달적 변인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한 연구(Flett, Hewitt, & Martin, 1995)는 지연행동과 완벽주의의 기원을 가족환경과 연계하고자 하는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고, 또 다

른 연구(Flett, Blankstein, & Martin, 1995)는 지연행동의 원인으로 발달적 기원과, 지연행동의 결과로서 심리적 부적응을 포괄하는 탐색적인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는 발달적 관점을 선호하는 연구자의 흥미를 끈다. Flett 등(2002: 89)이 어떤 성격적 특성에 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의 발달에 기여하는 요인과 과정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했듯이, 발달적 관점을 선호하는 연구자는 만성적 지연행동 원인으로 생애초기에 형성된 심리적 특성과 이것의 발현맥락을 알게 될 때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발달적 관심에 따라 만성적 지연행동의 발달적 기원으로 초기 부적응도식에 주목하고 지연행동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초기 부적응도식

초기 부적응도식은 Young(1990)에 의해서 처음 제안된 개념이다. 이는 인지치료자였던 그가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진전이 없는 환자들의 패턴 혹은 주제들의 목록을 작성하면서 그 후 보다 정교화한 것으로, 생애초기에 중요한 타인들과 관계에서 형성되어 평생 그 사람을 따라다니며 반복되는 자기패배적인 감정과 사고의 패턴을 유형화한 것이다.

Young은 생애초기의 핵심적인 정서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초기 부적응도식이 발생한다고 본다(Young, Klosko, & Weishaar, 2003). 이 도식들의 주된 기원은 개인의 기질과 유기, 학대, 무시, 거절 등의 혐오적인 아동기 경험에서 비롯되고, 광범위하고 만연된 형태로 생애 전반에 걸쳐 정교화 된다. Young 등(2003)은 핵심정서욕구가 좌절됨으로써 혐오적인 아동기 경험이 유발되는 전형적인 가족기원(부모특성 및 가족환경)의 5가지 유형이 있고 이에 따라 초기 부적응도식들이 분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Young(1990)은 초기에 16개의 부적응도식을 제안하였으나, 1996년 이후 18개의 도식으로 수정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그간의 경험적 연구들에서(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도식들이 확인되었고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 역시 확인되었다. 나이가 우울, 청소년의 성격적 역기능, 정서적 고갈, 낭만적 관계에서의 친밀감, 대학생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초기 부적응도식이 확인되었다(김윤숙, 2005; 조성호, 2001a, b,

2002; Young, et. al., 2003).

그런데 Young 등(2003)은 18개 초기 부적응도식이 어떻게 현재의 성격적인 문제행동과 연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18개 초기 부적응도식에서 세 가지 대처유형별로 해당되는 대표적인 문제행동을 하나씩 예시하고 있다. 이 중 지연행동과 유사한 문제행동이 5개 초기 부적응도식(의존/무능감 도식, 실패 도식,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 도식, 자기희생 도식, 엄격한 기준/과잉비판 도식)과 연계되어 제시되었다. Young은 예시된 문제행동과 초기 부적응도식은 임상적 경험을 통하여 확인하여 온 것이라 하므로, 이 5개 초기 부적응도식은 지연행동의 발달적 선구특성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심리치료 교재들에 실린 몇몇 정신역동적 임상가의 지연행동 내담자 사례는 Young 등(2003)이 설명하고 있는 몇 개의 초기 부적응도식과 유사하다(Yalom, 1985: 46-47; Arlow, 1989: 19-64).

2. 만성적 지연행동의 발달적 특성과 초기 부적응도식

정신역동이론에서는 성격발달에 미치는 초기 아동기 경험에서 감정의 역할에 주목하는데, 지연행동 역시 어린시절 경험한 감정이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이라 가정한다. Sommer(1990)는 지연행동을 부모나 권위적 인물에 대한 잠재한 저항의 표현이라고 보았는데, 그가 학업 지연행동을 치료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일방적으로 요구가 부여되는 교사-학생 관계에서 학생들은 권위적 인물에 대한 저항으로 지연행동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는 학업 지연행동은 부모-자녀관계에서의 '부모의 권위에 대한 보편적 투쟁'이 아동기 감정을 반영하는 개인의 정신역동에 따라 교사-학생관계에 무의식적으로 전이된 것이라 한다. 이와 유사하게 Smith와 York(1981)도 분노는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표현될 수 없기에 내면화되거나 지연행동 같이 비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접 표현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지연행동은 부모에 대한 분노가 전치된 것이라 보았다.

몇몇 다른 정신역동이론가들은 지연행동의 발달에 가족, 특별히 부모의 양육방식의 역할을 강조한다. Missildine(1963)은 지연행동의 근원으로서 잘못된 아동양육방식을 강조한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는 지연행동을 하게 되는 사람의 부모는 성취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에 달성했을 때에만 조건적으로 사

랑과 인정을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양육된 아동은 성취에 실패하였을 때 무가치감과 불안을 느끼게 되기 쉽다.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개인의 가치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포함된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지연행동을 통해 이전의 초기 아동기 감정을 재경험 내지 재현한다고 보았다. MacIntyre(1964)는 과도하게 허용적인 부모와 과도하게 엄격하거나 권위주의적인 부모와 같은 양 극단의 양육 방식이 지연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과도하게 허용적인 부모를 둔 아동은 너무 불안해서 스스로 부가한 목표를 지켜나가지 못하여(nervous underachiever) 지연행동을 하게 되고, 과도하게 엄격하거나 권위주의적인 부모를 둔 아동은 시간이라는 권위에 습관적으로 반항함으로써 권위적인 부모상으로부터 자율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anger underachiever) 지연행동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정신역동적 설명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Eysenck(1953)에 의해 비판받았듯이 주요개념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근래 경험적으로 연구된 결과들은 정신역동적인 견해와 상당한 정도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Voicu(1992)의 연구에서 여성들의 만성적인 지연행동 수준은 부모가 과잉 통제적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특별히 학업장면 지연행동 수준의 경우 남성은 아버지와의 갈등적 분리 감정이 강할수록, 여성은 아버지에 대한 의존감정이 강할수록 높았다. 학업장면 지연행동으로 인한 내적 외적 부정적 결과들은 남녀 모두 어머니의 거부, 아버지의 돌봄과 관련이 있었다. 이는 역기능적 부모-자녀관계와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의 어려움이 지연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Ferrari와 Olivette(1993)에서는 아버지의 양육방식이 권위주의적(authoritarian)이라 지각하는 딸들이 덜 권위주의적이라 지각하는 딸들보다 의사결정에서 지연행동 수준이 높았다. 반면에 권위적(authoritative) 양육방식과 허용적(permissive) 양육방식 점수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는 딸들의 의사결정 지연행동 수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후속연구(Ferrari & Olivette, 1994)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즉 아버지를 권위주의적이라 지각한 딸들이 더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 지연행동과 회피형 만성적 지연행동을 보였다. 반면에 아버지를 권위적이라 지각할수록 의사결정 지연행동과 회피형 만성적 지연행동을 적게 보였고, 아버지를 허용적이라 지각하는 정도는 딸

들의 지연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의사결정 지연행동과 회피형 만성적 지연행동이 모두 높은 딸들은 아버지를 더 권위주의적이고 덜 권위적이라 지각하였으며, 억압된 분노 수준이 높았다. 어머니의 경우 어떤 양육방식도 딸들의 지연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이 딸들의 지연행동 정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Ferrari, Harriot 및 Zimmerman(1999)은 부모-자녀관계의 질과 동료와의 관계의 질이 지연행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만성적 지연행동자는 남녀 모두 그의 부모 및 동성친구와 보다 많은 갈등적 관계에 있었고 피상적 수준의 덜 깊이 있는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지연행동이 빈약한 가족 관계에서 유래되며 덜 만족스러운 사회적 관계와도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Bowlby(1973)와 Ainsworth 등(1978)에서 확립된 애착개념은 부모-자녀사이에 발달하는 초기 아동기 유대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들에 의하면 애착유형은 다양한 적응변인과 감별적 관련을 보이며, 특별히 불안/양가적 애착이 자기 존중감의 결핍과 타인에 대한 불신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Collins & Read, 1990). 이에 따라 Flett과 Blankstein(1993)은 지연행동과 애착유형의 관련을 알아보았는데, 낮은 수준의 안정애착과 높은 수준의 불안/양가적 애착 및 회피애착은 높은 수준의 지연행동 수준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 또한 다소 간접적인 증거이지만 Hazan과 Shaver(1990)의 일하는 방식과 애착유형을 다룬 연구에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일하는 방식의 차이를 판별분석으로 확인하였을 때 두 유형을 감별하는 가장 좋은 문항은 “과제완수의 어려움”으로 나타나 지연행동이 초기 아동기 부모-자녀 관계경험에 매우 민감한 특성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험적 연구들은 정신역동이론에서 가정하듯 지연행동이 어린시절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와의 관계 및 가족환경에서 유래되어 발달한 특성적 경향성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인지행동 이론(Ellis & Knaus, 2002)에서 지연행동의 원인으로 가정하는 비합리적 사고도 근래 그 발달적 기원으로서 초기 아동기에 형성되는 핵심신념 또는 초기 도식을 인정하고 있다(Beck, Emery, & Greenberg, 1985). Clark 등(1999)에 따르면 핵심신념 또는 초기도식은 자동적 사고나 역기능적 가정보다 훨씬 초기 발달단계에 형성되는 것으로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 패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초

기 아동기에 형성되는 도식들 중 역기능적인 도식들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 Young(1990)의 초기 부적응도식이다.

Cecero, Nelson 및 Gillie(2004)는 아동기 외상이 초기 부적응도식을 예측하는지와 초기 부적응도식이 애착유형을 예측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은 불신/학대 도식, 정서적 결핍 도식, 결합/수치심 도식, 정서적 억제 도식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정서적 무시 경험은 정서적 결핍 도식, 결합/수치심 도식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신체적 학대 경험은 융합/미발달된 자기 도식을 부적응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또한, 정서적 결핍 도식, 정서적 억제 도식은 안정애착을 부적응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유기/불안정 도식은 몰두형 애착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사회적 고립/소외 도식, 정서적 결핍 도식은 정적으로, 유기/불안정 도식, 복종 도식은 부적응으로 거부형 애착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그리고 불신/학대 도식, 정서적 억제 도식은 정적으로 유의하게 공포형 애착을 예측하였다. 이 연구는 Young의 이론대로 초기 부적응도식이 혐오적인 아동기경험과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자녀 관계에서 유래됨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기술한 내용들을 통해 볼 때, 지연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자녀관계 및 양육방식에 기인한 아동기 발달적 기원을 가지고 있고, 초기 부적응도식은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자녀 관계 및 양육방식에서 형성되는 초기 발달단계의 심리적 도식임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기 부적응도식이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초기 발달적 변인이라 가정하고 초기 부적응도식이 만성적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한다.

그런데 검색결과 초기 부적응도식과 지연행동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다. 즉 본 연구는 초기 부적응도식과 지연행동의 관계를 알아보는 초기 단계의 예비연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특정 초기 부적응도식을 선택하여 만성적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전 가설(priori hypothesis)을 설정하는 것은 관련된 다른 도식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포괄적인 개념적 가설(conceptual hypothesis: 초기 부적응도식은 만성적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을 설정하여 탐색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오히려 연구의 효용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비연구에서는 향후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척도의 심리

측정적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 사용될 두 가지 지연행동 척도는 만성적 지연행동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질문지이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한 석사논문(은혜경, 1999)에서 한 척도가 단순 번역되어 사용되었을 정도로 이 두 척도는 국내에서 거의 사용된 적이 없다. 한편 초기 부적응도식질문지는 조성호(2001a)에 의해 번안되어 요인분석과정을 통해 연구되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추출한 각 초기 부적응도식에 속하는 문항에 Young의 원 척도에는 다른 초기 부적응도식에 속해있던 문항들이 상당수 포함되었다. 이는 한국인의 반응을 반영한 한국판 초기 부적응도식을 추출하고자하는 연구자의 의도에 따른 결과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추출된 초기 부적응도식은 한국인의 반응을 반영하긴 하지만, 각각의 초기 부적응도식에 해당하는 원척도 문항들과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에 Young(1990)과 Young 등(2003)의 도식개념을 적용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만성적 지연행동척도의 심리측정적 적절성을 검토하고, 도식질문지는 선행연구의 방식과 달리 Young의 원 척도의 각 초기 부적응도식에 소속되는 문항들 중 일정 수준이상의 형태계수를 보이는 문항들을 선정하여 척도의 적절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충북지역 3개 대학교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582명을 대상으로 2005년 9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대학생들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무응답이 있는 53명을 제외한 529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성별은 남자 37.2%(197명), 여자 62.2%(329명), 무응답 0.6%(3명)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 64.8%(343명), 2학년 20.0%(106명), 3학년 9.1%(48명), 4학년 5.1%(27명), 무응답 0.9%(5명)이었다.

2. 측정도구

1) Lay의 지연행동척도

Lay(1986)가 개발한 이 척도(General Procrastination)는 5점 리커트식의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alpha = .78$ 에서부터 $\alpha = .89$ 까지 이고, 한달 후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 = .80$ 이었다. 다양한 실제 지연행동들에서 준거타당도가 확인되었으며, 수렴타당도 및 공존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2인의 상담전공 박사 수료자가 각자 번안한 문안 중 가장 적절한 것을 토의를 거쳐 선정한 다음, 영어와 한국어 모두에 능통한 1인의 심리학자가 검토하여 재수정한 번안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 = .80$ 이었다.

2) McCown과 Johnson의 지연행동척도

McCown과 Johnson(1989)이 개발한 5점 리커트식의 15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Adult Inventory of Procrastination)는 지연행동의 행동적 요소만을 반영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alpha = .75$ 부터 $\alpha = .86$ 까지 이다. 한달 후 재검사 신뢰도는 $r = .71$ 이고, 여섯달 후 재검사 신뢰도는 $r = .76$ 으로 보고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준거타당도와 수렴 및 공존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Lay의 지연행동척도 번안과정과 동일한 절차로 번안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 = .83$ 이었다.

3) 초기부적응도식질문지

Young 도식질문지(Young Schema Questionnaire: Young & Brown, 1990, 1991개정; 1994개정)는 16가지 초기 부적응도식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205문항의 6점 리커트 스타일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이것은 현재 통용되는 18개 초기 부적응도식(Young et al., 2003)과 도식명칭이 약간 다르고, 승인-추구/인정-추구 도식과 처벌도식의 2개 도식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각 초기 부적응도식의 내적 일치도는 $\alpha = .83$ 에서 $\alpha = .96$ 의 범위 내에 있고, 비 임상표본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 = .50$ 에서

$r=.82$ 까지로 보고되었다. 다양한 관련변인들과의 수렴타당도 및 자존감과의 변별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Young(1990, 1991개정)의 초기부적응도식질문지를 조성호(2001a)가 번안한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3. 자료처리

529 명의 자료에 대하여 SPSS v11.5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연행동 척도와 초기 부적응도식 설문지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후, Mahalanobis distance를 이용하여 25명의 다변량 극단치를 제거하였다. 504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초기부적응도식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지연행동 척도와 초기 부적응도식척도의 요인구조

1) Lay의 지연행동척도

(1) Lay의 지연행동척도의 일차요인분석

Lay의 지연행동척도(이하 GP척도로 지칭)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GP척도를 구성하는 20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계수행렬을 분해하는 방법으로는 주축요인분해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요인의 개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유치 기준, 누적설명변량 백분율, 스크리 도표, 해석가능성 기준을 이용하였다. 요인간 상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요인간 상관을 허용하는 사각회전(direct oblimin)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별 문항을 선정할 때에는 형태계수행렬의 요인 부하량이 .3 이상인 경우만을 포함시켰으며, 특정 문항이 2개 이상의 요인에 .3 이상의 부하량을 가지는 경우에는 부하량이 더 큰 요인에 포함시켰다.

요인분석결과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은 4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크리도표와 해석가능성을 고려한 결과 3개의 요인만 추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요인의 개수를 3개로 고정시킨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개의 요인은 전체변량의 39.60%를 설명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26.13%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8개의 문항이 포함되고 ‘일반적 지연행동’ 요인이었으며, 두 번째 요인은 전체변량의 6.97%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2개의 문항이 포함되었고, ‘회신응답 지연행동’ 요인이었으며, 세 번째 요인은 전체변량의 6.51%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5개의 문항이 포함되었고, ‘구매 지연행동’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5개의 문항은 어떤 요인과의 .3 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보이지 않았다. 세 요인간 상관계수는 $r=.319 \sim r=.517$ 이었다.

(2) Lay의 지연행동척도의 이차요인분석

GP 척도의 세 요인간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세 개의 요인들이 지연행동의 단일차원을 형성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간 상관계수를 이용한 이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차 요인분석결과 첫 번째 요인의 고유치가 2.11로 전체변량의 70.40%를 설명하였으며, 세 개의 지연행동 요인들은 단일한 지연행동 요인으로 수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후의 분석에서는 GP 척도를 단일 요인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1> GP 척도에 대한 이차요인분석의 요인부하량

	요인 1	공통분
일반적 지연행동	.847	.718
응답회신 지연행동	.580	.336
구매 지연행동	.818	.669
고유치	2.112	
변량백분율	70.399	

2) McCown과 Johnson의 지연행동척도

(1) McCown과 Johnson의 지연행동척도의 일차요인분석

McCown과 Johnson의 지연행동척도(이하 AIP척도로 지칭)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AIP 척도 15개 문항에 대해 Lay의 지연행동척도에 적용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과 기준 및 절차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결과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은 4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크리 도표와 해석가능성을 고려한 결과 2개의 요인만 추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요인의 개수를 2개로 고정시킨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두개의 요인은 전체변량의 41.47%를 설명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31.37%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5개의 문항이 포함되고 ‘약속관련 지연행동’ 요인이었으며, 두 번째 요인은 전체변량의 10.10%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7개의 문항이 포함되었고, ‘일반적 지연행동’ 요인이었다. 3개의 문항은 어떤 요인과의 .3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이지 않았다. 두 요인간 상관계수는 $r=.548$ 이었다.

(2) McCown과 Johnson의 지연행동척도의 이차요인분석

AIP 척도의 세 요인간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세 개의 요인들이 지연행동의 단일차원을 형성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간 상관계수를 이용한 이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차 요인분석결과 첫 번째 요인의 고유치가 2.165로 전체변량의 72.15%를 설명하였으며, 세 개의 지연행동 요인들은 단일한 지연행동 요인으로 수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후의 분석에서는 AIP 척도를 단일 요인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2> AIP 척도에 대한 이차요인분석의 요인부하량

	요인 1	공통분
약속관련 지연행동	.807	.651
일반적 지연행동	.807	.651
고유치	1.652	
변량백분율	82.608	

3) 초기부적응도식 척도

(1) 초기부적응도식 척도의 일차요인분석

요인의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 고유치 1 이상인 요인을 주요요인으로 파악하는

Kaiser 기준과, 스크리 도표, 누적변량비율, 해석가능성을 사용하였다. 초기 부적응도식 질문지의 경우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은 40개가 있었지만, Young의 이론(Young & Brown, 1990; Young et al., 2003)과, 조성호(2001a)의 요인분석결과 및 해석가능성 기준을 적용한 결과 16개의 요인만 추출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였다.

Young의 초기부적응 도식은 요인들간의 상관이 0 이 아니라는 것을 가정하는 척도이므로(Young, 1990), Direct Oblimin 방식의 사각회전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형태계수행렬을 이용하였다. 그리하여 각 요인별 문항을 선정할 때에는 Young이 특정한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이라고 결정한 문항들 중 형태계수행렬의 계수가 .3 이상인 경우만을 포함시켰다.

요인분석결과, 16개 요인은 전체변량의 53.9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6개 요인 중 12개의 요인들은 Young(1991)의 초기부적응도식질문지와 동일한 도식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함/수치심(DS)도식과 성취실패(FA)도식은 하나의 단일한 도식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비바람직성(SU)도식과 복종(SB)도식은 본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3개 도식이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13개 도식에 포함된 문항들은 전체 205 문항 중 158개이었으며, 나머지 47개 문항은 원칙도의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에 높은 요인계수를 보이거나, 어느 요인에도 .3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이지 않은 문항들이었다.

Young의 원칙도에서 정서적 결핍(ED)도식은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9문항이 ED 도식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기(AB)도식은 18문항 중 13문항, 불신/학대(MA)도식은 17문항 중 13문항, 사회적 고립(SI)도식은 10문항 중 6문항, 결함/수치(DS)도식과 실패(FA)도식은 각각 15문항 중 9문항과 9문항 중 7문항이 합쳐져서 결함/수치/실패(DS/FA) 도식을 구성하였다. 의존/무능감(DI)도식은 15문항 중 14문항, 위험/질병에 대한 취약성(VH)도식은 14문항 중 10문항, 융합(EM)도식은 11 문항 중 10문항, 자기희생(SS)도식은 17문항 중 12문항, 정서적 억제(EI)도식은 9문항 중 5문항, 엄격한 기준(US)도식은 16문항 중 15문항, 특권의식(ET)도식은 11문항 중 5문항,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IS)도식은 15문항 중 12문항이 포함되었다. 사회적 비바람직성(SU)도식과 복종(SB)도식은 각각 9문항과 10문항 중 2문항씩만 고유하게 묶여서 제거하였다.

각각의 도식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반응을 평균하여 각 개인별 도식점수를 산출한 후,

13개 초기부적응도식들 간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13개 도식들간 상관은 $r=.032 \sim r=.696$ 로 다양하게 산출되었다.

자기희생(SS)과 엄격한 기준(US), 특권의식(ET),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IS)의 도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r=0.3$ 이상의 도식간 상관을 보이고 있다. 자기희생(SS) 도식은 엄격한 기준(US) 도식에만 $r=0.3$ 이상의 상관을 보였고, 엄격한 기준(US) 도식은 유기(AB), 불신/학대(MA), 사회적 고립(SI), 위험/질병에 대한 취약성(VH), 엄격한 기준(SS)의 도식에만 $r=0.3$ 이상의 상관을 보이고 있고, 특권의식(ET) 도식은 유기(AB), 불신/학대(MA), 위험/질병에 대한 취약성(VH), 엄격한 기준(US)의 도식에만 $r=0.3$ 이상의 상관을 보이고 있다.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IS) 도식은 정서적 결핍(ED)과 자기희생(SS), 엄격한 기준(US)의 도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r=0.3$ 이상의 상관을 보이고 있지만, 특권의식(ET) 도식에만 $r=0.5$ 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13개 도식들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 α)는 특권의식(ET) 도식($\alpha=.75$)을 제외하고는 모두 $\alpha=.8$ 이상(.84 ~ .95)의 값을 보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초기 부적응도식간 상관계수

	ED	AB	MA	SI	DS/FA	DI	VH	EM	SS	EI	US	ET	IS
ED	1.00												
AB	.500	1.00											
MA	.357	.600	1.00										
SI	.539	.597	.515	1.00									
DS/FA	.642	.653	.497	.748	1.00								
DI	.462	.631	.498	.558	.696	1.00							
VH	.380	.648	.591	.581	.674	.637	1.00						
EM	.304	.480	.439	.433	.516	.630	.536	1.00					
SS	.032	.160	.099	.125	.123	.114	.174	.145	1.00				
EI	.410	.448	.375	.480	.522	.476	.478	.336	.171	1.00			
US	.160	.307	.440	.304	.233	.222	.384	.289	.332	.305	1.00		
ET	.193	.319	.379	.270	.252	.291	.311	.254	.037	.253	.397	1.00	
IS	.265	.451	.400	.344	.386	.489	.478	.313	.036	.418	.176	.519	1.00

주1) 상관계수 $r > .088$ 이면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며, $r > .115$ 면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함.

ED:정서적 결핍 AB:유기 MA:불신/학대 SI:사회적 고립 DS/FA:결함/수치/실패 DI:의존/무능감 VH:위험/질병에 대한 취약성 EM:융합 SS:자기희생 EI:정서적 억제 US:엄격한 기준 ET:특권의식 IS: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

(2) 초기부적응도식 척도의 이차 요인분석

일차 요인분석에서 산출된 13개 초기부적응도식 점수들 간의 상관을 이용하여 이차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축요인분해방식을 이용하였고, 요인의 개수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고유치 1 이상의 기준과 해석가능성 기준을 이용하였다. 요인구조를 회전하는 방법은 요인간 상관을 허용하는 사각회전을 이용하였다.

요인분석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은 3개였으며, 스크리 검사와 해석가능성을 검토하여도 3개의 요인을 추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 개의 요인은 전체변량의 64.40%를 설명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46.41% 설명하였고, 두 번째 요인은 전체변량의 9.56%를 설명하였고, 세 번째 요인은 전체변량의 8.43%를 설명하였다.

형태계수행렬과 구조계수행렬을 살펴본 결과, 첫 번째 이차요인에는 정서적 결핍(ED), 유기(AB), 불신/학대(MA), 사회적 고립(SI), 결함/수치/실패(DS/FA), 의존/무능감(DI), 위험/질병에 대한 취약성(VH), 융합(EM), 정서적 억제(EI)의 도식이 포함되었다. 이 상위요인은 ‘취약한 자기’라고 명명하였는데, 무능하고 결함이 많고 실패를 거듭하는 자기 취약성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고립되거나 타인과 비분리, 의존되어 상실을 우려하거나 타인을 불신하는 자기-타인 관계에서의 취약성의 특성으로 구성되어있다.

두 번째 이차요인에 자기희생(SS) 도식과 엄격한 기준(US) 도식이 포함되었는데, 자기희생(SS) 도식은 자기만족을 희생해가면서까지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자발적으로 애쓰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엄격한 기준(US) 도식은 자신의 건강, 자존감, 인간관계, 즐거움 경험 등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면서도 높은 내적기준을 달성해야 한다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자기만족의 상실과 즐거움의 상실을 가져오면서도 높은 기준을 추구하는데 있다. ‘과장된 기준’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이차요인에 특권의식(ET) 도식과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IS) 도식이 포함되었는데, 특권의식(ET) 도식은 자신이 특별한 권리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적용되는 상호성의 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IS) 도식은 자기 통제를 발휘하지 않거나 발휘할 수 없으며, 좌절을 잘 견디지 못하여 불편한 일이나 책임을 회피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자신의 감정이나 충동표현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는데 있다. ‘손상된 제한’으로 명명하였다.

2. 초기 부적응도식과 지연행동의 관계

1) 지연행동과 초기 부적응도식의 상관

Lay의 지연행동척도와 McCown과 Johnson의 지연행동척도간 상관계수는 .670($p < .001$)으로 나타났고, 이 두 척도와 초기 부적응도식과의 상관은 $r = .050 \sim r = .408$ 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4> 지연행동과 초기부적응도식간 상관

	ED	AB	MA	SI	DS/ FA	DI	VH	EM	SS	EI	US	ET	IS	GP
GP	.142	.199	.116	.142	.163	.263	.136	.124	-.179	.147	-.185	.156	.408	1.00
AIP	.152	.134	.050	.144	.195	.253	.132	.102	-.136	.136	-.169	.135	.382	.670

주1) 상관계수 $r > .088$ 이면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며, $r > .115$ 면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함.

ED:정서적 결핍 AB:유기 MA:불신/학대 SI:사회적 고립 DS/FA:결함/수치/실패 DI:의존/무능감 VH:위험/질병에 대한 취약성 EM:융합 SS:자기희생 EI:정서적 억제 US:엄격한 기준 ET:특권의식 IS: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

Lay의 지연행동척도(GP)는 초기 부적응도식 중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IS) 도식과 $r = .408$ ($p < .001$)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의존/무능감(DI) 도식과 $r = .263$ ($p < .001$), 엄격한 기준(US) 도식과 $r = -.185$ ($p < .001$), 자기희생(SS) 도식과 $r = -.179$ ($p < .001$)의 상관을 보였으며, McCown과 Johnson의 지연행동척도(AIP)는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IS) 도식과 $r = .382$ ($p < .001$)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의존/무능감(DI) 도식과 $r = .253$ ($p < .001$), 엄격한 기준(US) 도식과 $r = -.169$ ($p < .001$), 결함/수치/실패(DS/FA) 도식과 $r = .195$ ($p < .001$)의 상관을 보였다. 그런데 특이하게 자기희생(SS) 도식과 엄격한 기준(US) 도식은 다른 도식들과 달리 두 지연행동 척도와 모두 부적상관을 보였다.

2)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초기 부적응도식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초기 부적응도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두 가지 지연행동점수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13개 초기부적응도식 점수를 독립변인으로 한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 분석의 목적이 지연행동점수를 가장 잘 설명하는 초기 부적응도식을 찾는 것이므로, Stepwise 방식의 단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중공선성이 회귀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Tolerance 와 VIF 지수를 살펴보았다. Tolerance는 .1 보다 작으면 다중공선성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VIF 지수는 10 보다 크면 다중공선성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Tolerance 는 모두 .7 보다 컸으며, VIF 는 2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영향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Lay의 지연행동척도 점수에 대한 초기부적응도식점수의 단계적 회귀분석결과(표 5),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IS) 도식과 엄격한 기준(US) 도식, 의존/무능감(DI) 도식, 자기희생(SS) 도식이 GP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의 도식은 GP 변량의 26.3%를 설명하였다. 독립변인의 상대적 설명량을 나타내는 표준화 회귀를 살펴보면,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IS) 도식의 표준화 회귀계수(β)가 .380 으로 가장 컸으며, 엄격한 기준(US) 도식($\beta=-.212$), 의존/무능감(DI) 도식($\beta=.160$), 자기희생(SS) 도식($\beta=-.13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GP에 대한 초기부적응도식의 단계적 회귀분석

단계	도식	표준화회귀계수	표준오차	t	ΔR^2
1 단계	IS	.423	.030	10.712***	.179***
2 단계	IS	.463	.030	11.922***	.052***
	US	-.232	.028	-5.974***	
3 단계	IS	.389	.034	8.655***	.015**
	US	-.255	.028	-6.512***	
	DI	.145	.034	3.184**	
4 단계	IS	.380	.034	8.516***	.016***
	US	-.212	.029	-5.207***	
	DI	.160	.034	3.513***	
	SS	-.136	.032	-3.413***	

** $p < .01$, *** $p < .001$ IS: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 US:엄격한 기준 DI:의존/무능감 SS:자기희생

McCown과 Johnson의 지연행동척도 점수에 대한 초기 부적응도식 점수의 단계적 회귀분석결과(표6), GP와 마찬가지로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IS) 도식과 엄격한 기준(US) 도식, 의존/무능감(DI) 도식, 자기희생(SS) 도식이 AIP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의 도식은 AIP 변량의 22.4%를 설명하였다. 독립변인의 상대적 설명량을 나타내는 표준화 회귀를 살펴보면,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IS) 도식의 표준화 회귀계수(β)가 .358 로 가장 컸으며, 엄격한 기준(US) 도식($\beta=-.234$), 의존/무능감(DI) 도식($\beta=.140$), 자기희생(SS) 도식($\beta=-.08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AIP에 대한 초기부적응도식의 단계적 회귀분석

단계	도식	표준화회귀계수	표준오차	t	ΔR^2
1 단계	IS	.382	.036	9.265***	.146***
2 단계	IS	.425	.036	10.495***	.058***
	US	-.244	.033	-6.025***	
3 단계	IS	.363	.040	7.975***	.013**
	US	-.263	.033	-6.454***	
	DI	.134	.040	2.907 **	
4 단계	IS	.358	.040	7.887***	.007*
	US	-.234	.035	-5.473***	
	DI	.140	.040	3.041 **	
	SS	-.087	.038	-2.081 *	

* $p < .05$, ** $p < .01$, *** $p < .001$

IV. 논 의

1. 지연행동 척도와 초기 부적응도식척도의 요인구조

Lay의 지연행동척도를 요인분석한 결과 세 개의 요인이 확인되었다. 이는 이차요인 분석에서 첫 번째 요인이 전체변량의 70.44%를 설명함으로써 단일한 지연행동 요인으로 수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McCown과 Johnson의 지연행동척도를 요인분석한 결과도 일차요인으로 두 개의 요인이 확인되었으나, 이차요인분석에서 첫 번째 요인

이 전체변량의 72.15%를 설명함으로써 단일한 지연행동 요인으로 수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각각 $\alpha = .80$, $\alpha = .83$ 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Lay(1986)가 요인분석 후 단일차원임을 시사한다고 하였고, McCown과 Johnson(1989)이 일반적 지연행동 요인에 주로 높게 부하되는 문항들을 선별하여 개발하였다고 한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최근에 Vestervelt(2000)는 이 두 척도를 일차, 이차 요인분석한 결과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요인수와 유사한 설명변량을 보여주는 결과를 얻었다. 나아가 이 세 연구들에서는 본 연구와 유사한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두 만성적 지연행동 척도의 단일차원 요인구조와 내적일관성은 거듭 확인된 셈이다.

초기 부적응도식 척도를 요인분석한 결과 16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이 요인들은 전체변량의 53.9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요인중 12개의 요인들은 Young(1990)의 척도와 동일한 도식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함/수치심 도식과 성취실패 도식은 하나의 단일한 도식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비바람직성 도식과 복종 도식은 본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3개 도식이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척도로 요인분석을 수행한 선행연구(조성호, 2001a)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인데, 선행연구에서는 추출된 요인 수와 설명변량이 본 연구와 거의 동일했으나, Young의 16개 도식 중 3개 도식은 양분되거나 합쳐져서 총 15개가 반영되었으며 사회적 비바람직성 요인만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차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취약한 자기, 과장된 기준, 손상된 제한의 세 개 상위 요인이 나타났으나, 선행연구에서는 취약한 자기와 팽창된 자기의 두 개 상위 요인이 나타났다. 또 본 연구에서는 16개 요인중 자기희생 도식과 엄격한 기준 도식이 과장된 기준의 상위요인을, 특권의식 도식과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 도식이 손상된 제한을, 나머지 요인들은 취약한 자기의 상위 요인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16개 요인중 배려/희생 도식(본연구의 자기희생 도식)은 상위요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었고, 자기우월 도식(본연구의 특권의식 도식)과 절대기준/완벽 도식(본연구의 엄격한 기준 도식)은 팽창된 자기의 상위요인을, 나머지 요인들은 취약한 자기의 상위 요인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두 연구에서 각각의 도식에 포함되는 문항을 선택하는 기준이 달랐

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는 문항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그 연구에서 결정된 도식에서 0.3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문항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원칙도에서는 다른 도식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선행연구에서 결정된 도식에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도식에 포함되는 문항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원칙도의 도식에 소속되는 문항들 중 0.3이상의 형태계수를 보이는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그런데 선행연구(조성호, 2001a)에서 자기우월 도식, 절대기준/완벽 도식은 나머지 도식들과 별도의 상위요인으로 묶였으며, 다른 도식들과 0.2이하의 낮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배려/희생 도식은 어느 상위요인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다른 도식들과 낮은 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에 대해 선행연구자는 이 세 도식이 나머지 도식들과 성질이나 기능 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였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희생 도식(선행연구의 배려/희생 도식)과 엄격한 기준 도식(선행연구의 절대기준/완벽 도식)이 하나의 상위요인으로 묶이고, 특권의식 도식(선행연구의 자기우월 도식)과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 도식이 다른 하나의 상위요인으로 묶였으며, 이 네 도식을 제외한 다른 도식들은 모두 0.3 이상의 도식간 상관을 보였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 자기희생(선행연구의 배려/희생) 도식은 엄격한 기준(선행연구의 절대기준/완벽) 도식에만 0.3 이상의 상관을 보였고, 나머지 도식과는 유의하지 않거나 낮은 도식간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특권의식 도식(선행연구의 자기우월 도식)은 네 개 도식에만 0.3이상의 상관을 보이고 있고, 엄격한 기준 도식(선행연구의 절대기준/완벽 도식)은 다섯 개 도식에만 0.3이상의 상관을 보이고 있고,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 도식은 세 개 도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0.3이상의 상관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선행연구(조성호, 2001a)의 결과와 일관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자기희생 도식(선행연구의 배려/희생 도식)과 엄격한 기준 도식(선행연구의 절대기준/완벽 도식) 및 특권의식 도식(선행연구의 자기우월 도식)은 나머지 도식들과 성질이나 기능 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 초기 부적응도식과 지연행동의 관계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으로 만성적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초기 부적응도식을 확

인한 결과는 네 개의 동일한 도식이 공히 Lay의 척도와 McCown과 Johnson의 척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 도식, 엄격한 기준 도식, 의존/무능감 도식, 자기희생 도식이 Lay 척도 지연행동 변량의 26.3%를, McCown과 Johnson 척도 지연행동 변량의 22.4%를 설명하였다.

이는 대체로 Young 등(2003)이 예시한 초기 부적응도식 유형과 비슷하다. 그들은 부족한 자기통제/ 자기훈련 도식, 엄격한 기준 도식, 의존/무능감 도식, 자기희생 도식, 실패도식에서 지연행동이 출현하기 쉽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실패도식만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Young 등(2003)에서 예시한 도식과 본 연구의 결과는 거의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Young 등(2003)의 이론적 가정과 달리 엄격한 기준 도식과 자기희생 도식이 지연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들의 초기 부적응도식에 대한 가정에 따르면 초기 부적응도식 수준이 높을수록 지연행동 수준은 증가해야한다. 즉 지연행동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어야 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 결과는 Young 등(2003)의 이론적 가정과는 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엄격한 기준 도식과 자기희생 도식이 부적응적인 도식이 아니라 적응적인 도식으로 기능했음을 시사하는 것인데, 이 두 도식이 적응적 도식일 가능성은 조성호(2001a, b, 2002)에서 이미 시사되었었다. 그(2001a)는 자기우월 도식, 절대기준/완벽 도식(본연구의 엄격한 기준도식)은 한국인의 적응적 방어유형 중 하나로 나타난 전능(일종의 자기애적 방어)과 내용상 유사함을 들어, 이 도식들이 한국인에게는 Young의 제안과 달리 부적응적 도식이 아니라 적응적 도식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의 다른 연구(2001b)에서는 적응적 방어유형을 종속변인으로 한 중다회귀분석에서 배려희생(본연구의 자기희생)과 자기우월 도식 특성이 많을수록 더 적응적 방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의 또 다른 연구(2002)에서 초기 부적응도식은 전반적인 정신 병리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적대감 등의 주요 정서적 증상들과 편집성, 경계선 등의 성격 장애의 특질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절대기준/완벽(본연구의 엄격한 기준), 배려/희생(본연구의 자기희생), 자기우월의 세 가지 도식만 일관되게 유의하지 않거나 낮은 상관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의 모든 관련연구(2001a, b, 2002)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어서 이 세 도식이 Young 이론과 달리 적응적 도식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특권도식(조성호의 자기우월)도식이 지연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고 낮은 수준의 정적상

관을 보인 것을 제외하면 조성호의 연구들과 일관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엄격한 기준 도식, 자기희생 도식이 적응적 도식일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만성적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4개 도식은 Young 등(2003)이 분류한 5가지 도식영역 중에 1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도식영역에 하나씩 속해있다. 제외된 도식영역은 단절과 거절 영역인데 이 영역은 안정, 안전, 돌봄 등의 건강한 인격발달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발생한 도식들이 속해있다. 또한 Young 등(2003)은 가장 이른 시기의 혐오적인 아동기 경험으로 발달하게 되므로 보다 심한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는 도식으로 7가지 도식을 예시하고 있는데 그중 본 연구에서 밝혀진 4개 도식중 1개(의존/무능감 도식)만이 해당된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지연행동은 심각한 발달적 기원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오히려 Young 등(2003)에 따르면 각 도식영역은 영역별로 독특한 역기능적인 가족기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4개의 도식영역에 속하는 도식들에 관계하고 있는 지연행동은 다양한 가족 기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예컨대 지연행동에 상대적으로 큰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 도식은 자기통제와 욕구좌절을 견디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불편감, 고통, 갈등, 책임감 등을 회피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취, 헌신, 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부모가 아동의 삶에 너무 깊이 관여하거나 과잉보호하며 또는 지나칠 정도의 한계가 없는 자유나 자율성을 주기 때문에 발달한다. 그러나 엄격한 기준 도식은 전형적으로 엄하고 요구사항이 많고 때로는 처벌적인 부모로 인해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의무와 규칙준수, 이완과 자기표현보다는 경계와 감정숨기기를 중요시하게 되는 가족기원을 가지게 되고, 자기희생 도식은 부모의 조건적인 수용을 통해 자신의 욕구나 감정 보다 중요 타인의 욕구나 소망 또는 사회적 수용이나 지위를 중시하게 되는 가족기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영역이 다른 4개의 도식에서 비롯된 지연행동의 가족기원의 다양함은 상담자가 지연행동문제의 발달적 기원을 이해하고자 할 때는 포괄적인 가족역동의 조망을 갖고 감별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나아가 4개의 도식과 지연행동 간에 매개변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참 고 문 헌

- 김윤숙(2005). 부적응 도식을 매개로 한 초기 부모 애착과 경계선 성격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2005 연차학술대회 학술발표논문집*, 462-463.
- 은혜경(1999). 대학생 미루기 감소를 위한 인지-행동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호(2001a). 한국판 도식 질문지의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77-192.
- 조성호(2001b). 초기 부적응 도식과 방어유형 및 대인관계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3), 39-54.
- 조성호(2002). 초기 부적응 도식과 심리적 부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775-788.
- Ainsworth, M. D., Blehar, M. C., Waters,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s and at home*. Hillsdale, NJ: Erlbaum.
- Arlow, J. (1989). Psychoanalysis. In R. Corsini & D. Wedding (Eds), *Current Psychotherapies* (4th ed., pp. 19-64). Itasca, IL: F.E. Peacock.
- Baumeister, R. F. (1997). Esteem threat, self-regulatory breakdown and emotional distress as factors of self defeating behavior.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2), 145-174.
- Beck, A. T., Emery, G., & Greenberg, R. L.(198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New York: Basic Books.
- Blunt, A. K., & Pychyl, T. A.(2000). Task aversiveness and procrastination: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ask aversiveness across stages of personal projects. *Personality & Individual Differences*, 28, 153-167.
- Bowlby, J.(1973). *Attachment and loss. Vol. II: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Cecero, J. J., Nelson, J. D., & Gillie, J. M.(2004). Assessment tools and tenets of schema therapy: Toward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Early Maladaptive

- Schema Questionnaire—Research Version (EMSQ-R).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1, 344–357.
- Clark, D. A., Beck, A. T., & Alford, B. A.(1999). *Scientific foundations of cognitive therapy and therapy of depress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 Clark, J. L., & Hill, O. W.(1994). Academic procrastination among African-American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Reports*, 75, 931–936.
- Collins, N. L., & Read, S. J.(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Day, V., Mensink, D., & O' Sullivan, M.(2000). Pattern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Journal of College Reading and Learning*, 30(2), 121–134.
- Ellis, A., & Knaus, W. J.(2002). *Overcoming procrastination*(Rev. ed).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 Eysenck, H. J.(1953). *The structure of human personality*. New York: Wiley.
- Ferrari, J. R.(2004). Trait procrastination in academic settings: An overview of students who engage in task delays. In H. C. Schouwenburg, C. Lay, T. A. Pychyl, & J. R. Ferrari.(Eds), *Counseling the procrastinator in academic settings* (pp. 19–28). Washington, DC: APA Publishing,
- Ferrari, J. R., & Olivette, M. J.(1993). Perceptions of parental control and the development of indecision among late adolescent females. *Adolescence*, 28, 963–970.
- Ferrari, J. R., & Olivette, M. J.(1994). Parental authority influences on the development of female dysfunctional procrastin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8, 87–100.
- Ferrari, J. R., Harriot, J. S., & Zimmerman, M.(1999). The social support network of procrastinators: Friends or family of troub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26, 321–331
- Ferrari, J. R., Johnson, J. L., & McCown, W. G.(1995). *Procrastination and task*

- avoidance: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New York: Plenum.
- Flett, G. L., & Blankstein, K. R.(1993). Unpublished data. Yale University. In J. R. Ferrari, J. L. Johnson, & W. G. McCown (Eds. 1995), *Procrastination and task avoidance: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 159). New York: Plenum Press.
- Flett, G. L., Blankstein, K. R., & Martin, T. R.(1995). Procrastination, negative self-evaluation, and stress in depression and anxiety: A Review and preliminary model. In J. R. Ferrari, J. L. Johnson, & W. G. McCown (Eds.), *Procrastination and task avoidance: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137-167). New York: Plenum Press.
- Flett, G. L., Hewitt, P. L., & Martin, T. R.(1995). Dimensions of perfectionism and procrastination. In J. R. Ferrari, J. L. Johnson, & W. G. McCown (Eds.), *Procrastination and task avoidance: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113-136). New York: Plenum Press.
- Flett, G. L., Hewitt, P. L., Oliver, J. M., & Macdonald, S.(2002). Perfectionism in children and their parents: A developmental analysis.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89-13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allagher, R. P.(1992). Student need survey have multiple benefi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 281-282.
- Hammer, J., & Ferrari, J. R.(2002). Differential incidence of procrastination between Blue-and White-Collar workers. *Current Psychology*, 21, 333.
- Hazan, C., & Shaver, P. R.(1990). Love and work: An attachment-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270-280.
- Lay, C. H.(1986). At last, my research article on procrastin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0, 474-495.
- MacIntyre, P.(1964). Dynamics and treatment of passive aggressive underachiever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18, 95-108.
- Mandel, H. P.(1997). *Conduct disorder and underachievement: Risk factors,*

- assessment, treatment, and prevention*. New York: Wiley.
- Mandel, H. P., & Marcus, S. I.(1988). *The psychology of underachievement: Differential diagnosis and differential treatment*. New York: Wiley.
- McCown, W., & Johnson, J.(1989). *Validation of an adult inventory of procrastination*. Paper presented at the Society for Personality Assessment, New York.
- Missildine, H.(1963). *Your inner child of the past*. New York: Simon & Schuster.
- Smith, J. & York, L.(1981). *Procrastination: a self-help manual*. CA: Berkeley Counseling Press.
- Solomon, L. J., & Rothblum, E. D.(1984). Academic procrastination: Frequency and cognitive-behavioral correl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503-509.
- Sommer, W. G.(1990). Procrastination and cramming: How adept students ace the system.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39, 5-10.
- Vestervelt, B. A.(2000). *An examination of the content and construct validity of four measures of procrastination*.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Carleton University.
- Voicu, D.(1992). *An examination of parent-child relations,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relation to academic and general dispositional procrastination*. Unpublished honor's thesis, York University, North York, Ontario, Canada.
- Yalom, I. D.(198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3rd ed)*. New York: Basic Books.
- Young, J. E.(1990). *Cognitive therapy for personality disorders*.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s Press.
- Young, J. E., & Brown, G.(1990). *Young Schema Questionnaire*. New York: Cognitive Therapy Center of New York.
- Young, J. E., Klosko, J. S., & Weishaar, M. E.(2003).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New York: Guilford Press.

ABSTRACT

The Relation between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Chronic Procrastination of College Students

Lim, Sung-Moon*

This preliminary study had two purpose. First, to confirm the psychometric validation of Lay's general procrastination scale(GP), McCown & Johnson's adult inventory of procrastination(AIP) and Young schema questionnaire(YSQ). Second, to test the relations between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chronic procrastination.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529 students(male 197, female 329). Two statistical analysis procedures were performed. First, the corelation analysis between Lay's GP and McCown's AIP, the factorial analysis of Lay's GP, McCown's AIP and YSQ. Second, the hierachical multiple regression for GP and AIP with predictive variables of 13 maladaptive schema. The result were as follow. First, the each of GP and AIP was confirmed to have single factor structure and stable internal consistency, which validate in psychometric fitness of GP and AIP. Second, the significant predictive variables for GP and AIP were the same four variables as Insufficient Self-control/Self-Discipline(IS)schema, Unrelenting Standards (US)schema, Functional Dependence/Incompetence(DI)schema, Self-Sacrifice(SS)schema. And then the two of four schema predict chronic procrastination with negative direction, this result indicate that the meanings of the two schema is different from the originality of Young's maladaptive schema in Korea.

Key Words : chronic procrastination, Lay's GP, McCown & Johnson's AIP, Young schema questionnaire, early maladaptive schemas

투고일 : 10월 29일, 심사일 12월 6일, 심사완료일 : 12월 18일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